

심사총평

코로나로 인해 삶이 많이 위축된 시국임에도 111편이라는 많은 수의 작품이 경기도 극단의 장막 희곡공모에 응모되었다. 소재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또한 응모된 작품들 중 다수에서 영상을 염두에 둔 작품이 많았으며, 공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도 있었다.

역사 속의 사건과 인물 등 과거에 몰입한 작품들이 소재로서만 과거를 소비하지 말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이르는 지점을 더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이번에 공모된 작품들을 통해, 어두운 밤 홀로 불을 켜고 창작에 매진한 작가들의 열정과, 인생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며, 미래를 향한 시선이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경기도극단과 한국 연극의 앞날을 밝게 전망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응모된 111편의 희곡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희곡을 제외한 96편의 희곡이 예심 심사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 본심 12편의 희곡을 중심으로 심사위원간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종심 3편이 거론되었고, 그 가운데 <위대한 뻘>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심에 오른 3편의 희곡은 <쌍개자의 숲>과 <수메>, 그리고 <위대한 뻘>이다. 공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을 선정해야하는 만큼 열띤 토론의 시간을 거쳐 최종 작품이 결정되었다. <쌍개자의 숲>은 비일상적인 사건과 고립된 환경 등 일상을 뛰어넘는 감정 등이 매력으로 다가왔으나, 다소 작위적인 구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수메>는 대장장이와 불, 해녀의 이미지들이 극적이지만, 진행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두 작품 모두 깊은 인상을 준 작품이므로 더 발전시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최종당선작인 <위대한 뻘>은 물고기로 변하고 싶어 하는 아빠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력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콰도르 원주민을 찾으러 떠난 아버지, 딸의 스승인 유전학연구자의 욕망과 임상실험, 엄마가 독서지도 수업에서 만난 소년과 자살로 죽은 소녀 등 여러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서로 연관되어 진행됨에도,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다만 유전학연구자와 전직 PD출신의 유튜버 등의 인물설정은 다소 직접적이라,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예리하면서도 은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일동